

47장.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블레셋이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였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두 강대국인 바벨론과 애굽의 사이에 끼어서 두 나라의 움직임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흔들거렸다. 1절에서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있을 일을 말하였고 2절부터는 북방에서 내려온 바벨론에 의하여 가사, 아스글론이 전멸될 것을 예언한다.

북방에서 내려온 바벨론은 창일하는 강물처럼 블레셋 지역을 엄몰시킬 것이다. 바벨론 병거가 물고 내려올 때에 그들은 손이 풀려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블레셋은 두로와 시돈을 동맹으로 삼아서 어려움을 넘기려고 할 것이나 그 동맹국도 모두 패망할 것이고, 블레셋의 본거지인 갑돌 섬의 사람도 모두 멸절될 것이다. 가사와 아스글론은 머리를 밀고 칼로 자해하면서 슬픔을 표시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게 될 것이다.

6-7절에서는 칼의 이야기로 그 비참한 상황을 묘사한다. 여호와와 칼을 부르면서 '이제 칼집에 들어가서 쉬라' 고 말하자 칼은 '여호와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쉴 수 없다' 고 대답한다. 칼이 계속하여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공격하는 이야기로 이 예언은 끝난다.

목상과 실천:

여호와와 칼이 블레셋을 전멸시킨 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처럼 이스라엘에 괴로움을 안겨준 민족은 드물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은 옆구리의 가시처럼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다. 그러한 나라를 여호와께서 친히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블레셋이 전멸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애굽과 바벨론의 두 열강을 시켜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두 열강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거리는 이스라엘에게 큰 경고가 되었을 것이다. 세상의 열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일이었다.

그들의 원수를 멸망시키는 여호와와 칼에서 사랑을 깨닫고, 두 열강을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는 데에서 여호화를 더욱 경외하고 의지하도록 인도하였을 것이다.

47장 익힘 문제

1.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이 어디에서 내려온 민족에 의하여 멸망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2절)
2. 예레미야는 가사, 아스글론 등의 거민이 전쟁으로 인해 애곡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곳 은 어느 나라의 땅입니까? (5절)